

韓國農村의 人口構造變化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Rural Demographic Transformation

黃 昞 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目 次>

- | | |
|--------------------|------------------|
| I. 序 論 | 2. 農村地域의 人口減少實態 |
| II. 農村地域 人口의 大移動 | IV. 人口構造의 變化 |
| 1. 地域人口의 再編 | 1. 家口規模 및 構造變動推移 |
| 2. 都農間의 人口移動 | 2. 農村人口構造의 變化 |
| III. 地域部別 人口分布의 變化 | V. 結 論 |
| 1. 市部人口의 급격한 成長 | |

I. 序 論

1960년대 이후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구로 70·80년대를 거치면서 고도성장의 길을 달려왔다.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은 주로 國家基幹産業 육성이라는 측면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工業部門에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社會間接資本에의 投資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로 인해서 公營부문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실로 엄청난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의 전제조건으로는 풍부한 勞動人口, 값싼 賃金, 産業基盤施設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제반 환경적 조건이 양호한 '都市'가 公營화를 통한 고도성장의 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맥락에서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성장을 돌아보면, 45년 해방이후 50년대까지는 海外同胞의 정착과 피난의 경험에서 온 移村向都의 물결로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에 급격한 人口增加를 나타내 전형적인 과잉도시화현상을 보였으나, 60년대 이후에는 工業化 우선정책으로 이들 都市地域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1960년 센서스 당시 전국의 市·邑部 인구는 전국인구의 37%에 불과하였으나 70년에는

50%의 선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80%를 넘어선 상태이다. 都市의 數에 있어서도 60년의 26개에서 90년 1월 현재 73개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都市地域에서는 成長一路를 걷고 있었던 반면, 農村地域은 인구규모, GNP에서의 비중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인 低成長을 기록하였다.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60~88년 사이에 총 138개 군중에서 121개 군의 絶對人口數가 줄어들었으며 50% 이상 줄어든 郡의 수도 15개에 달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人口·家口構成·經濟·社會·福祉 등의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도 그 폭이 都市의 성장만큼이나 컸다고 하겠다.

경제성장의 주무대였던 도시지역의 裏面에서는 도시지역의 성장과 변화에 못지않은 苦痛을 수반한 農村地域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인구이동과 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都農間 地域隔差의 해소와 앞으로의 농촌지역 발전방향을 정립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農村地域 人口의 大移動

1. 地域人口의 再編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급속한 공업화가 진전되자 이에 따라 農村人口가 都市로 이동해 오는 대규모의 지역간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동은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역간 정보전달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이동자수가 1960년 전반기(1961~66년)에는 약 300만명으로 5세 이상 전체 인구의 12.4%를 차지하였던 것이 점차로 증가되어 1970년대 후반기(75~80년)에는 770만명으로 2.5배 이상 많아졌으며, 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22.9%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역간(市·道) 이동자수와 지역내 이동자수의 비율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던 것이 1980~1985년의 기간동안에는 75~80년 기간동안보다 총인구이동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이동(9.0%)보다도 지역간 이동(11.7%)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등록신고에 의한 인구의 이동을 살펴보면 71년에는 총인구의 13.5%인 421만의 인구가 이동하였으나 75년에는 901만(이동율 26.7%)의 인구가 대거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율은 20%내외를 부침하면서 1988년에 이르러서는 23.9%인 997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人口移動量の 變化推移 (단위: 천명, %)

年度 \ 地域	總人口移動	地域內	地域間	其 他
1961 ~66	3,018 (12.4)	1,536 (6.3)	1,442 (5.9)	39.5 (0.2)
1966 ~70	4,394 (16.2)	1,918 (7.1)	2,459 (9.0)	19.9 (0.1)
1970 ~75	5,209 (17.1)	2,362 (7.7)	2,790 (9.2)	58.5 (0.2)
1975 ~80	7,658 (22.9)	3,879 (11.6)	3,739 (11.2)	39.9 (0.1)
1980 ~85	8,402 (20.8)	3,656 (9.0)	4,710 (11.7)	36.4 (0.1)

資料: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각년도.

註) ()는 5세이상 人口에 대한 移動人口의 比率

이동율의 지역별 상황을 보면 地域內 이동이 71년 68.4%에서 88년 현재는 66.4%로 절대적인 다수를 보이고는 있으나 地域間 인구이동도 71년 31.6%에서 88년에는 33.6%로 계속해서 미증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동자의 性比¹⁾는 다소 시사점을 주고 있는바 지역내 이동인구의 성비는 71년 105.2로부터 시작하여 70년대에는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었지만 8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비율이 많이 감소하여 거의 동수의 남녀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간 인구이동은 지역내의 인구이동보다는 약간 그 성비의 폭이 커 71년 115.1명에서 77년 123.7명, 79년에는 130.6명까지 벌어졌던 폭이 이후 점차 줄어들어 1988년에는 108.9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지역내의 비교적 단거리 이동에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지역간의 원거리 이동에는 남자의 이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都農間의 人口移動

일반적으로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에서 2·3차 산업을 위주로 하는 産業構造로의 변화는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1) 性比란 여자 10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의 남자인구 비율임.

도시인구의 증대에 따른 巨大都市化(metropolitaniz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²⁾

道경계를 넘어 일어나는 농촌과 도시간의 인구이동을 보면 도시지역으로의 전입자수는 60년대 전반기(1961~66년)에는 109만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경제성장이 고도화되면서 급격히 증가되어 66~70년에는 251만명을 나타냈으며 1970년대 후반기에는 394만명으로 증가되어 60년대 전반기에 비해 약 3.6배 증가를 보였다.

한편 도시지역에서의 轉出者도 교통수단의 발달로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60년 전반기에는 65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대 후반기에는 210만명으로 증가되었다.

1960~80년 기간동안 도시로의 純이동자수를 보면 1960년대 전반기에는 49만명(순이동을 23%)으로 증가되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도시로의 순이동자수는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기에는 184만명(순이동을 9.6%)으로 집계되었다.

都農間의 인구이동을 세분화해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으로 1960년 전반기에 전체 이동인구의 40.7%를 차지하던 것이 60년대 후반기에는 57.8%로 무려 17%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70년대에 들어와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여 70년대 후반기에는 전체 이동인구의 51.6%를 점하였고 83년에는 45.1%로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移動形態別 移動人口比率의 變化 (단위: 천명, %)

年度 移動形態	61~66	66~70	60~70	70~75	75~80	70~80	1983
農村→都市	40.7	57.8	52.5	49.2	51.6	50.6	45.1
都市→都市	34.7	21.0	25.3	8.1	29.0	28.6	20.4
都市→農村	10.7	11.8	11.5	15.6	13.9	14.7	5.9
農村→農村	13.9	9.4	10.7	7.1	5.5	6.1	24.6
計	100 (1,442)	100 (3,189)	100 (4,632)	100 (3,569)	100 (4,888)	100 (8,457)	100 (1,762)

資料: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1966, 1970, 1975, 1980

經濟企劃院·韓國人口保健研究院(1983), 「人口移動特別調查(제1차보고서)」.

註) 1) 83년은 以前 5年前의 居住地와 現居住地의 關係에서 導出된 것임.

2) 83년의 總人口移動比率중 기타(4.0%)가 빠져 있음.

3) ()는 기간중 總人口 移動量

2) 李漢淳·李愚理(1983), 한국내 인구이동의 '패턴'변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 「人口問題論集」 제24호, p. 123.

한편 郡部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실태를 주민등록신고 결과로 살펴보면 75년에 군부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은 약 64만명이었다. 1985년에는 70년 이후 가장 작은 26만명이 이동했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1988년에는 총 39만정도가 농촌지역에서 都市地域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농촌에서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성의 수가 적어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주 듣게되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의 성비를 살펴보다라도 그 실태를 어느정도 추측할 수가 있다. 즉 1975년에 도시로 이동한 인구중에 여자의 비율은 51.5%(약 33만)로 남자의 48.5%(약 31만)를 다소 상회하여 그 절대차는 약 2만명 정도였던 것이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1988년에는 50.3%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총인구가 남자는 133만명이며 여자는 168만명이었는데 그 차이는 약 35만명으로 農村地域의 여성의 수적인 부족은 이러한 현상의 누적적인 결과라 하겠다.

한편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지역내와 지역간으로 보면 비교적 단거리 이동인 지역내의 이동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대체적으로 30%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내 이동보다는 장거리 이동이라 할 수 있는 지역간 이동이 두드러져 70%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간의 이동인구는 대개가 서울 및 수도권 또는 기타 대도시지역이 흡수한 것으로 이들 지역의 인구집중추이가 얼마나 급격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 기간중의 서울시 전입인구의 社會人口學的 특성을 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선택적(selective)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여자의 전입량이 남자보다 많아 전입인구의 성비가 86.8%로 낮으며, 市·郡部別로는 각기 91.8% 및 82.7%로 군부전입인구의 성비가 도시보다 크게 낮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15~29세의 젊은 연령층이 전체 전입인구의 5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 인구층이 20.6%로 전체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性別로는 남자가 15~34세층에 69.9%가 집중되어 있는데 반하여 여자는 15~29세층에 57.4%가 집중되어 있으며 남자가 20~29세층에 55.0%가 몰려있는데 비하여 여자는 20~34세층에 52.2%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연령층의 전입자중에는 10대 및 20대 초반의 미혼자와 20대 중반 이후의 기혼자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³⁾

3) 尹鐘周(1988.5), "서울시 인구이동에 관한 고찰", 「거대도시 "서울"-과거, 현재, 미래」, 서울시립대학교 개교7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서울시립대학교·서울특별시, p. 38.

Ⅲ. 地域部別 人口分布의 變化

1. 市部人口의 급격한 成長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60년 2,499만명이었던 것이 1988년 현재는 약 1.7배 증가한 4,265만명으로, 이는 연평균 2.5%의 고속성장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총인구의 증가를 市部, 邑部, 面部단위로 살펴보면 각각의 단위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우리나라의 市部 총인구는 약700만 정도로 전국인구의 28%에 불과했었다. 이러던 것이 66년 센서스에서는 980만명으로 60년 당시 시부인구보다 무려 40%(연평균 6.7%)가 증가되면서부터 시작된 市部人口의 증가추세는 66~70년사이에는 29.6%(연평균 7.4%)로 센서스 연도별 연평균 인구증가율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70년이후부터 그 증가추세가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시부인구는 연평균으로 70~75년에 6.4%, 75~80년에 5.5%, 80~85년에 4.7%, 85~88년에 4.4%의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던 것이다. 이 결과 1988년 현재 시부인구는 2,992만명으로 全國人口의 70%를 넘어서게 되어 1960년 당시 28%였던 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시부인구는 1960년에서 1988년사이에 연평균 성장율 2.5%를 훨씬 上廻하는 것으로 시부인구의 증가가 전국인구의 증가를 압도적으로 주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부인구의 증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기간 동안의 성장지역과 침체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60년 센서스 당시 시부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慶北으로 86만명이었으며 全南(60만명), 京畿(49만명), 慶南(41만명)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6년뒤인 1966년에는 전국의 시부인구가 60년에 비해 40%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지역에서 일제히 시부인구의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충남지역은 6년동안에 69%의 증가를 보였으며 江原(52.5%), 京畿(48.4%)지역도 전국 시부인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절대인구가 증가하긴 했어도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는 全北이 16.7%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전남(24.5%), 충북(27%), 제주(28.8%), 경북(29.7%)지역도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市部人口의 증가는 66년 이후부터는 그 양상을 상당히 다르게 하고 있다. 66~70년간동안의 전국 시부인구는 29.6%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전국의 어떤 道地域도 전국 인구증가율 29.6%를 넘어서는 곳이 없다. 특히 60~66년기간에는 그래도 작은폭이나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農村地域의 인구가 이 기간동안에는 절대인구감소로 그

추세가 역전되었으며, 또 전국의 시부인구 증가추세사상 최고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였던 기간으로 전국 시부인구증가율을 넘어서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 기간동안에는 센서스 기간별로 최고의 시부인구증가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러한 시부인구의 증가가 지방의 시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울과 釜山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의 증가가 엄청난 정도였으며 이 당시 농촌지역의 감소인구중 상당한 부분이 서울과 釜山, 특히 서울에 유입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비록 전국 市部人口增加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지역별로는 큰 폭의 증가가 있었으니 충남(24.9%), 경기(22.4%), 경북(22.1%)이 비교적 높은 증가를 나타낸 반면 충북(11.2%), 전북(12.6%), 전남(16.1%)지역은 전국 시부인구증가의 거의 절반정도의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60년 당시 시부인구가 3위였던 경기지역은 그동안의 계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나타낸 전남지역을 뛰어넘어 2위로 부상하고 있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京畿地域의 시부인구증가는 무려 84.4%라는 고속성장을 하게되는데, 70~75년의 5년동안 연평균 17%씩 증가한 결과이다. 이는 전국 시부인구증가율의 2.6배인 것으로 그 어느 지역과도 비교가 안되는 것이며 각 센서스 기간동안 꾸준히 20%이상의 인구증가를 보여온 慶北地域의 75년 현재 인구 172萬에 거의 육박(165萬)하고 있다. 또한 경남지역도 이 기간에 큰 성장을 보여 연평균 약 11%의 시부인구증가를 기록하였다. 증가폭이 비교적 작았던 지역으로는 11%증가에 그친 江原道를 비롯하여 전남(19.6%), 충남(24.8%), 경북(25.5%)지역이 포함된다. 즉 이들지역의 증가폭을 전국의 증가율보다 높은 성장을 나타낸 경기·경남지역과 비교해 보면, 강원도의 5년간 증가율(11%)은 慶南의 이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같으며 全南의 증가율(19.6%)은 경기도의 연평균 증가율(17%)과 비슷한 실정으로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후반기(75~80년)에 들어오면 60년대 후반기에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서울·부산으로의 집중적인 시부인구증가는 그 대상지역을 어느정도 지방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전국 시부인구 증가율 27.6%를 상회하는 지역으로는 忠北 51.6%를 필두로 京畿(44.3%), 江原(38.8%), 慶南(35.9%), 慶北(33.2%), 忠南(28%)지역이 해당된다. 또한 60년이후 시부인구가 계속 증가되었던 경기지역이 마침내 80년에는 경남(229萬)을 제치고 首位자리를 맞바꾸어 238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전북·전남·제주지역은 60년 이래 80년까지 20년간 한번도 전국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만성적인 低成長을 나타낸 지역으로 기록되었다.

1980년대에는 많은 邑部地域이 市로 승격하고 대구와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지역별로 보면 혼란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서울·부산과 더불어 전국 시부인구

증가의 한 軸을 형성하고 있던 경기지역이 인천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市部人口가 7%감소라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인천의 인구를 감안해 볼 때는 그 증가추세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상당한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니, 1980년에 인천을 제외한 京畿地域의 인구는 약 130만이었다던 것이 1985년에는 약 221만이 되어 5년동안에 70.9%의 증가를 나타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慶尙北道도 대구지역인구를 제외한 1980년 인구에 비하여 1985년의 인구는 26.3%증가한 것이었다. 특기할 사항은 만성적인 저성장지역이었던 전북, 제주지역이 각각 39.4%, 70.1%로 전국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단지 이들 지역에서 邑部의 市昇格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저성장의 구조적인 조정이 아니었음은 당시 邑部人口의 감소(전북 20.2%)와 面部人口의 감소(전북 22.4%, 제주 76.2%) 실태에서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 農村의 절대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두 지역의 감소폭이 훨씬 컸던 것이다.

80년대 후반기(85~88년)에도 역시 최고의 증가율을 보인 곳은 경기지역으로 39.5%가 증가하였다. 慶北이 26.3%, 忠南이 25.8%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市部人口 증가율인 13.1%에 못미치는 10%이하의 증가를 보여 대도시 인구집중이 어느정도 安定期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2. 農村地域의 人口減少實態

1) 邑部の 相對的 沈滯

농촌지역의 中心都市로서 지역발전의 核이 되는 邑地域은 일부는 절대인구의 감소에 의해, 일부는 市로 승격됨에 의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1960년 전국에 85개이던 邑의 수는 1973년에 122邑, 1980년에는 204邑으로 매우 큰 수적증가를 나타냈으나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9년 1월 현재 176邑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적감소는 모두가 市로의 승격에 의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60~66년 사이에 전국 邑部の 인구는 15.6%의 증가를 나타냈는 바 경기(34.5%), 충남(30%), 제주(23.4%), 강원(23.1%), 전남(18.9%)지역이 전국 평균의 증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이다. 반면에 충북(14.9%), 경북(6.6%), 전북(0.4%)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증가를 나타냈으며 경남은 오히려 2.3%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都市人口의 변동에서 살펴보았듯이 60년대 후반기에는 도시인구증가의 시대라고 할만큼 그 폭이 컸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邑部人口의 성장의 폭은 크질않아 7.2%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경기지역의 성장은 市部地域과 다름이 없는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60년대 전반기에 증가추세를 보였던 全北이 1.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충남, 경남지역도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낮은 증가를 보이는데 불과하였다. 특히 이 기간은 대도시 인구집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전북(5.4%), 경남(3.7%), 충남(3.3%), 전남(2.9%), 경북(0.01%) 등의 지역총인구가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66~70년간동안에 시부인구의 증가가 상당히 커서 다소 주춤했던 邑部人口 증가는 70년대 전반기에는 다소 숨통이 터지는듯 하였으나 70년대 후반기를 고비로 뚜렷하게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하게 된다. 75~80년간동안에 비록 21.9%라는 증가를 나타내긴 하였지만 京畿·全北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읍부인구 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 경기지역의 증가율은 무려 91.6%라는 고도성장을 나타내 전국 증가율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충북지역은 19.2%의 감소를 기록하여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하향추세는 80년대 접어들면서 더욱 확연해져 전국에서 6.1%증가에 그치고 있다. 즉 80~85년 사이에 전북 20.2%, 강원 12.1%, 경북 7.9%의 절대인구감소가 있었으며 경남(6.2%), 충남(5.1%) 지역에서 약간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주지역에서만은 42.5%라는 높은 증가를 나타냈으나 이는 面部人口의 절대적 감소(76.2%)라는 희생에 의한 것임에 다름이 없다.

1980년 후반기에는 시부인구증가보다 작기는 하지만 60년 이래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냈던 邑部人口가 완전한 감소추세로 돌아서는 시기가 되었다. 85~88년 기간동안에 전국의 읍부인구는 10%의 감소를 기록하여 그동안의 증가추세에 종언을 기하였던 것이다.

지역별로 볼 때에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6%), 충북(1.1%)의 두 지역 뿐이며 나머지 全地域은 최저 3.8%(제주)에서 최고 21.6%(충남)까지의 절대인구감소를 기록하였다.

87년에서 88년까지의 인구실태를 살펴보면 전국의 邑部人口는 1년간 약 15.5%가 감소하여 그 폭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케 한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경기지역이 30.3%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고 전북(22.8%), 경남(22.3%), 충남(16.3%), 경북(9.9%)의 감소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인구가 감소된 邑의 수를 살펴보면 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경기지역의 감소율이 30.4%로 높게 나타났으나 減少邑의 수는 단 2邑에 불과하였고 절대인구가 감소한 邑의 수가 가장 많은 전남(26개 邑)은 1.1%감소에 그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는 邑部の 시부승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기간내에 읍부의 시부승격은 1988년 189邑에서 89년 1월 176邑으로 13개읍이 市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2) 面部的 지속적인 人口轉出

60년대 이후 급격한 都市化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農村地域은 현저한 인구의 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었는데 같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邑部의 인구는 어느정도는 증가를 하고 일부는 市部로 승격하는 등의 경로를 밟았지만, 面部의 실태는 말그대로 일방적인 인구감소였다. 그것도 都市로의 轉出에 의한 인구감소였으며 전출형태도 젊은층이 많이 이동하는 형태를 취하여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연령계층별로 볼 때에도 40대 이후의 계층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이한 현상이 露呈되어 왔던 것이다.

1960년 우리나라의 面部人口는 1,573만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6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던 것이 66년에는 전국 인구증가율 16.8%에 훨씬 못미치는 6.6%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60년대 후반기의 面部人口를 지역별로 보더라도 전국의 각지역이 일제히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으로는 충남(9.8%), 전북(9.7%), 경남(9.5%), 전남(9.3%), 경북(9.0%)이 포함되며 감소폭이 비교적 작았던 지역은 京畿가 2%로 가장 작았으며 충북(2.7%), 제주(3.5%)지역이 다음을 따르고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에 市部人口의 증가는 전국 평균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面部人口의 감소가 전국 면부의 감소폭보다도 컸던 지역이 많은 것으로 보아 지역간의 인구가동이 활발했으며, 또 이러한 면부인구의 감소분은 상당한 정도로 대도시에 편입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66~70년 기간동안에 다소 감소폭이 작았던 江原과 忠北이 각각 14.5%, 7.8%의 감소를 보여 전국 면부인구감소율(7.7%)보다 높은 감소율을 나타낸 반면, 전북(5.5%), 전남(6%)지역은 이들 지역과는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은 유일하게 면부인구가 증가한 곳으로 5.4%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 邑部로의 승격이 31개면이 있어 면부인구감소의 어느정도는 지역간 전출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은 당연하다.

70년대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면부인구의 감소폭은 급격하게 커져 19.2%를 기록하고 있다. 또 前年度 센서스에 이어 또다시 절대인구가 증가한 濟州와 京畿(14.8%), 忠南(13.7%)을 제외하면 전지역이 전국 평균에 가깝거나 다소 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 기간 역시 邑部로의 승격이 많아 1978년에 120개였던 邑數가 1979년에는 173개로 53개의 증가가 있어 전국 면부인구감소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80년대 전반기인 1980~1985년 기간동안에는 지역별로 평균 약 20%의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제주지역은 76.2%감소를 나타내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邑部昇格으로 인한 것이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60년 이후 88년까지 전국의 면부인구는 계속적인 감소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京畿地域은 언제나 전국 면부인구 감소율보다 감소폭이 작아 28年 동안 가장 작은 연평균 감소율(1.7%)을 기록하여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는 面部轉出의 이유가 없었거나 다른 지역에서의 유입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市部·邑部의 성장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컸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기간(60~88년) 동안에 面部人口의 연평균 감소폭이 비교적 컸던 지역으로는 강원(2.0%), 전북(2.0%)이 속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지역은 道 전체 인구가 60년 240万에서 1988년 216만명으로 연평균 0.3%의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慶北·全南 지역의 총인구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대구와 광주의 직할시 승격으로 인한 것으로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던 전북의 인구 감소와는 그 의미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面部人口의 감소를 80년과 88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80년 11월 전국 1,256개의 面 중에서 인구 1万미만이 756개로서 전체 面數의 60.3%를 넘게 되었고 인구 5千 미만은 75년에는 41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80년에는 138개로 5년간에 무려 3.4배가 늘어났으며 88년에는 전국 1,265개의 面 중에서 445개면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80년에 비하여 또다시 3.2배가 늘어났고 75년에 비하면 10.8배가 증가한 셈이다.

<표 3> 各道別 人口5千未滿의 面 (단위: 個, %)

道 別	總面의數	5千以下의面	占有率
京 畿	160	41	25.6
江 原	93	33	35.5
忠 北	92	41	44.6
忠 南	155	29	18.7
全 北	146	64	43.8
全 南	199	63	43.8
慶 北	214	75	35.0
慶 南	201	98	48.8
濟 州	5	1	20.0
全 國	1,265	445	35.2

資料: 各地域 統計年報, 1989.

88년 현재 전국의 인구 3천미만인 63개면의 인구 총합은 14만7천명으로 京畿道 지역의 남양주군(175천), 화성군(237천), 시흥군(258천), 고양군(224천), 광주군(172천), 용인군(180천)보다도 작은 것이며, 경남 밀양군(148천), 양산군(146천)과 엇비슷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IV. 人口構造의 變化

1. 家口規模 및 構造 변동추이

우리나라 센서스의 정의에 따르면 '家口란 하나의 住居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가구는 普通家口와 準家口로 구분된다. 준가구란 기숙사나 합숙소, 교도소와 같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만 일상적인 보통가구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가구이다. 보통가구는 친족가구와 비친족가구로 다시 세분되는데 친족가구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가구를 말하며, 비친족가구란 전혀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가구를 말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종류의 가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친족가구이다.

우리나라의 가구는 1960년 4,378千 가구에서 1985년에는 8,591千 가구로 25년간 약 2.2배(연평균 3.2%)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의 인구가 약 1.6배(연평균 2.0%)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구수 증가가 더 빨리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구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이유로는 농업이나 소규모 상공업 등의 자영업보다 봉급생활자수가 늘어난 것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가정기능의 축소·약화 등으로 인한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현상과 이혼·독신가구의 급증추세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일반적으로 평균 가구규모의 변동은 死亡率과 出生力⁶⁾의 변동, 인구가동 등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 사망력의 감소는 평균 가구원수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출생률의 감소는 평균가구원수를 감소시키고 있다.⁷⁾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의 수는 1960년에 5.56명이던 것이 1970년에는 5.24명, 1980년에는 4.55명, 1985년에는 4.16명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긴하나 도농간의 차이를 85년의

5) 金日炫·崔鳳鎬(1989) "가족 및 가구변화추이 : 1960~1985", 「한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 44

6) 出生力(fertility)이란 출산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제지표를 말하는 것으로써, 출산력의 지표에는 粗出生率, 일반출생률, 연령층별출산율, 총출산율 등이 있다.

7) 李喜演(1986) 「인구지리학」, 법문사, p. 237

가구원수별 분포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5인 이하 家口가(82.6%) 많고 6인 이상의 가구가(17.4%) 적은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6명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가(23.8%)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년 이후 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인한 가구의 증가와 주택공급의 부족등의 요인에 의하여 自家住宅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볼 때 1960년 79.1%에서 무려 25.5%나 감소하였으며, 도시지역(41.3%)이 농촌지역(77.5%) 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사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農村 人口構造의 變化

농촌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邑部의 절대인구는 1970년 285만명이었던 것이 75년에는 372만, 80년에는 454만, 85년에는 482만이 되어 뒤에 서술할 面部의 절대인구 감소와는 달리 연평균 4.6%의 인구성장율을 나타내었다.

邑部 전체 인구의 性比는 70년 100.8이었던 것이 1985년에는 101.0으로 별 변동이 없었으나, 연령계층별로는 다소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10~14세 계층은 70년에는 남녀간의 성비가 108.0이었던 것이 계속 그 폭이 좁아져 1985년에는 103.2를 기록하여 남자 대 여자의 인구가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10~14세 年齡階層과는 전혀 반대로 20~24세 연령계층에서는 그 폭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0년에는 성비가 104.9이었던 것이 75년 109.8, 80년 109.7로 별 변동이 없다가 1985년에는 121.7로 경층 뛰었다. 남자가 26만 정도이고 여자가 21만 정도로 약 5만명이나 남자가 더 많은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25~29세의 연령층에 이르면 앞의 연령계층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70년에서부터 1985년까지 점점 100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여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를 면부전출 여성의 정착이라고 본다면 20~24세 계층의 성비가 높아져야 함에도 이 계층은 121.2로 남자가 월등히 높으며, 또 인구가동실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개의 면부전출인구는 中間都市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이동한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면부전출 여성의 정착이 주원인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교육관계나 직장관계로 도시로 전출했던 여성이 교육을 마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로 다시 읍부로 귀환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읍부에는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여자의 일자리가 남자의 일자리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소기업체, 대리점, 각종의 서비스업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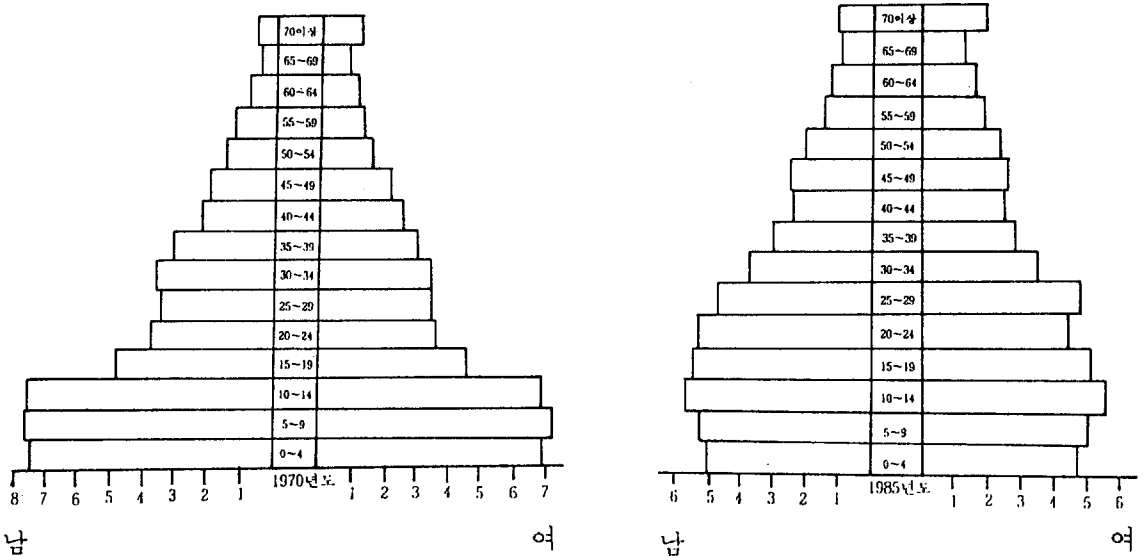
산업이 읍부의 산업특성이 되는 까닭에 여성의 진출이 남자보다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에 20~24세였던 남자인구(239만)는 1985년에 25~29세가 되면서 오히려 감소(227만)하고 있어 남자의 진출이 눈에 띈다.

〈표 5〉 農村地域의 年齡階層別 및 性別 人口變化推移(邑部) (단위: 천명, %)

年度 性別	1970			1975			1980			1985		
	男	女	性比	男	女	性比	男	女	性比	男	女	性比
總計	1,431	1,420	100.8	1,875	1,846	101.6	2,276	2,260	100.7	2,420	2,395	101.0
0~4	210	196	107.1	243	227	107.2	248	233	106.6	240	224	107.1
5~9	217	203	106.9	260	242	107.2	287	271	105.6	252	239	105.3
10~14	213	198	108.0	260	244	106.8	283	272	104.2	276	268	103.2
15~19	141	132	106.2	220	205	107.1	269	251	107.3	266	245	108.6
20~24	109	104	104.9	161	147	109.8	239	218	109.7	257	212	121.2
25~29	93	100	93.0	126	127	99.5	172	176	97.9	227	230	98.7
30~34	101	100	100.8	117	116	100.4	149	141	106.2	183	169	108.1
35~39	85	86	98.6	121	117	103.9	131	127	103.9	149	133	112.4
40~44	63	70	89.9	96	98	98.4	129	125	102.6	122	119	102.0
45~49	57	59	96.3	70	81	87.0	106	110	95.9	123	127	97.2
50~54	46	45	100.4	63	67	93.3	75	89	84.4	101	111	90.7
55~59	36	38	93.8	50	53	95.3	67	77	87.8	72	93	78.1
60~64	26	31	83.5	37	42	86.7	49	57	86.8	60	76	78.3
65~69	16	22	70.7	25	33	74.8	34	45	76.0	43	56	77.3
70이상	19	34	55.9	25	46	54.3	37	69	53.6	49	93	52.7

資料: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各年도

〈그림 1〉 邑部人口構造의 變化



어쨌든 읍부의 연령계층을 살펴볼 때 농촌지역의 특성(20~24세 인구 성비의 현격한 차이)과 도시지역의 특성(24~29세 인구 성비의 차이)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계속해서 30~34세 계층, 35~39세 계층에 있어서 여자의 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현상이 뒤바뀌기 시작한다. 즉 45세부터는 남녀의 성비에 있어서 여자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한다.

한편 전체적인 年齡構造面에서는 0~14세까지의 연령층 인구는 전체 읍부인구에 대한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9세까지는 그 점유율이 다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40대부터는 더욱 뚜렷하여 그 이상의 인구비는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구조로 볼 때 읍부의 연령구조는 뒤에 서술할 면부의 연령구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70년 당시만 해도 20~29세 계층이 비교적 작은 인구의 전출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85년으로 진행되면서는 계속하여 이 계층의 점유비율이 증가하고 그 이상의 계층도 계속 증가해 나감으로써 低出生率-低死亡率의 도시형 연령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읍부의 절대인구 증가와는 달리 面部의 인구는 1970년 1,565만명에서 75년 1,491만명, 80년 1,146만명으로 줄어 들다가 마침내 1985년에는 919만명으로 千만명선 이하로 떨어져 70~85년간의 절대인구 41.3%, 연평균 2.7%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전체적인 연령계층별 구조를 보면 전체 면부인구중 0~14세까지의 연령계층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낮은 출생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구억제라는 측면에서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에 따라 농촌지역 특히 면부인구의 노령화가 계속 진전되고 있음을 45세 이상 인구의 점유율의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고 알 수 있다.

물론 면부인구의 연령구조도 읍부에서처럼 점차로 저출생율-저사망율로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20~40세 연령계층의 점유율이 읍부의 그것과는 차이가 나며 40~50세 계층의 점유율이 더 두터운 것은 농촌연령구조의 특성, 즉 전출지역의 구조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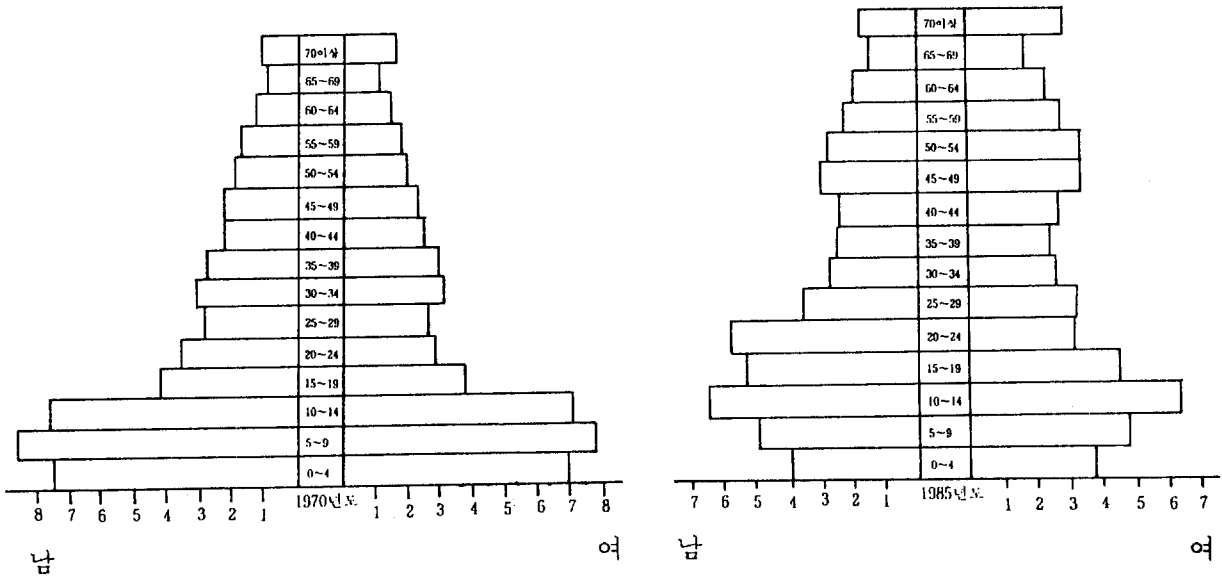
그러나 연령계층별 性比를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바 15~19세 계층, 20~24세 계층, 25~29세 계층의 성비가 특히 높으며 또 계속해서 그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4세 연령계층의 성비는 70년대 125.8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2만 정도 많았는데 1985년에는 25만 정도 남자가 많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農村地域의 年齡階層別 性別 人口變化推移(面部) (단위: 천명, %)

年度 性別	1970			1975			1980			1985		
	男	女	性比	男	女	性比	男	女	性比	男	女	性比
總計	7,861	7,793	100.9	7,197	6,988	103.0	5,775	5,685	101.6	4,654	4,534	102.7
0~4	1,166	1,095	106.5	873	813	107.4	538	503	106.9	360	338	106.5
5~9	1,311	1,223	107.3	1,042	984	105.9	739	704	104.9	453	436	103.8
10~14	1,197	1,109	108.0	10.98	1021	107.5	829	801	103.6	592	581	102.0
15~19	642	590	108.9	759	658	115.3	607	523	116.1	479	402	118.9
20~24	565	449	125.8	623	447	139.5	602	309	194.8	536	283	189.6
25~29	434	435	99.6	413	352	117.4	331	306	108.1	334	295	113.4
30~34	470	492	95.7	359	369	97.3	279	268	104.4	252	242	104.1
35~39	425	462	91.9	410	424	96.8	277	300	92.4	231	219	105.8
40~44	333	395	84.4	365	399	91.4	332	354	93.9	224	246	91.4
45~49	323	355	91.0	284	343	82.8	312	352	88.5	273	303	89.9
50~54	283	298	94.9	273	301	90.6	240	293	82.0	257	302	85.1
55~59	244	264	92.4	232	252	92.3	226	258	87.6	199	252	79.0
60~64	191	220	87.2	186	211	88.2	179	200	89.4	174	207	83.9
65~69	121	156	77.7	134	167	80.2	132	160	82.4	131	156	83.9
70이상	154	250	61.6	146	248	58.9	152	267	56.9	158	271	58.3

資料: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各년도

<그림 2> 面部人口構造의 變化



이 연령계층의 면부인구 감소추세를 보더라도 70~85년의 기간동안에 남자는 약 5%가 줄어들었으나 여자는 약 37%나 줄어들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녀간 인구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결혼연령의⁸⁾ 변화추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농촌지역에서는 結婚適齡期의 여자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어서 오늘날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V. 結 論

60년 이후 전개된 급격한 都市化의 물결속에서 農村地域의 人口가 都市로 이동하였으니 市部의 人口는 60~66년의 40.1% 增加를 시발로 이후 계속해서 높은 人口增加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60~88년의 28년 동안에 年平均 11.7%씩의 숨가쁜 증가를 거듭해 온 셈이다.

이러한 都市化의 추세와는 전혀 반대로 農村地域, 특히 面部의 人口감소는 市部の 絶對人口 증가폭만큼은 아니더라도 같은 기간동안에 年平均 1.7%의 減少를 거듭하여 온 것이었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農村地域, 즉 138개군 중에서 121개의 郡이 한결같이 人口가 감소한 것으로 1960년 약 1,780만에서 1988년 1,270만으로 약 510만의 人口減少를 기록하였다. '28年間 농촌의 年平均 人口減少率 1.0%, 같은 기간 전국의 總 人口增加率 年平均 2.5%'는 약 30년에 걸친 우리나라 農村의 變化過程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일 것 같다. 급격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都市에서는 집이 없어서, 農村地域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現實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예외적인 高度成長을 누려온 곳이 있으니, 京畿道는 이 기간중에 年平均 0.4%의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高陽郡의 경우는 年 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首都圈 특히 서울로의 人口集中은 실로 엄청난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農村地域에서 빠져나간 인구의 상당한 수가 수도권에 集中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釜山·大邱·光州·大田 등의 몇몇 대도시에 집중된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전국의 73개시 중에서 85%에 달하는 62個市의 人口를 모두 합하여도 서울시의 人口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인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人口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 즉 財政·社會間接資本·福祉 등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더 클 것이리라 생각된다.

8) 평균 결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이 각각 1960년 26.8세(여자 22.8세), 24.9세(여자 21.0세)에서 80년에는 27.8세(여자 24.4세), 27.2세(여자 23.0세)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격차에 의해서 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 生活圈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中小都市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써 농촌의 인구는 중간 경유지 없이 곧바로 서울이나 대도시로 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특히 읍부지역의 中心性은 더욱 뒤떨어져 주변지역의 面部 轉出人口를 별로 수용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중소도시육성, 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하겠다.

어찌 되었든 農村地域의 인구가 언제까지 減少될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線에선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地域의 中心生活圈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農村地域 자체의 安定性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高承濟(1979) 「韓國村落社會의 研究」, 一志社
- 金 源(1987) 「都市行政論」, 博英社
- 盧椿熙(1988) 「都市學概論」, 형설출판사
- 孫禎睦(1988) 「韓國現代都市의 발자취」, 一志社
- 李萬甲(1984) 「工業發展과 韓國農村」, 서울대학교 출판부
- 李喜演(1986) 「人口地理學」, 法文社
- 崔雲植(1980) 「韓國의 都市와 村落研究」, 보진재
- 高甲錫(1985) “인구이동추이와 전망”, 「인구학회지」 제8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 權源庸(1987) “우리나라 都市體制의 變遷과 診斷”, 「국가발전과 공공행정」, 노용희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 金安濟(1979) “농촌도시변화과정과 지역개발정책”, 「환경논총」 제6권
- 김일현·최봉호(1989) “가족 및 가구변화추이: 1960~1985”, 「한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孫禎睦(1984) “대도시 인구집중의 물리적 한계”, 「도시문제」 2월호
- 尹鐘周(1988) “서울市 人口移動에 대한 考察”, 「巨大都市 “서울”-過去, 現在, 未來」, 서울市 立大學校 개교7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발표논문집, 서울시립대학교
- 이한순·이우리(1983) “韓國內 人口移動의 ‘패턴’변화에 관한 계량적研究”, 「인구문제논집」, 제24호
-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1960~1985
- _____ 「한국통계연감」, 1961~1989
- _____ (1989) 「인구이동통계연보」

- _____ (1967) 「인구동태 특별조사자료」
- _____ (1983) 韓國人口保健研究院, 「인구이동특별조사(제1차 보고서)」
- _____ (1989) 韓國의 사회지표
- 內務部(1989) 「한국도시연감」
-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농협연감」, 1968~1989
- 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8) 「農村生活環境改善을 위한 정책과제」
- 韓國人口保健研究院(1983) 「2000년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인구문제)」
- _____ (1983) 「韓國의 人口問題와 정책방향」
- _____ (1989) 「首都圈對策과 地域均衡發展을 위한 정책토론회」
- Arnold, David S(1974) *Developing the Municipal Organization*, ICMA
- Friedmann, John(1975) *Regional Policy*, Cmbridge, The M. I. T. Press
- Rondinelli, D. & K. ruddle(1978) *Urbanization and Rural Development*, Praeger Publishers
- Tweeten, L. & G. Brinkman(1976) *Micropolitan Development*,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